

교환학생 귀국 설문조사서

파견 학교 : KIMEP University (Kazakhstan)
파견 기간 : 2학기 2012년 8월~2013년 5월
이름 : 손다미
학과 : 국제관계학과
학번 : 2009150020

A. 출국 전 준비사항

1. 해당 자매교로 파견을 나가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높으면 일단 유리합니다. 또한 러시아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관련 과목 수강 기록이나, 러시아어학원을 다니셨다면 수강증을 제시하면 선발 시 유리할 것입니다.

2. 해당대학에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충분한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음 참가 학생들이 해당학교의 교환학생 파견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관련 정보는 교환학생을 갔다 온 학우에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같은 과 동기여서 사소한 부분까지 물어보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견당시 KIMEP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이 많지 않아서, 귀국 보고서나 다른 자료는 없었습니다. 또한 KIMEP에서 우리학교로 오는 교환학생도 (정규학기+썸머) 많으니,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서 물어보고 그 친구들과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서도 교류를 하면 파견 초기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저 역시 한국에서 KIMEP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보고, 쪽 교류하면서 카작에 가서도 1년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집에도 초대받고 현지 친구들도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확실히 현지 친구들이 있으면 적응도 빠르고 학교생활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3. 해당대학에서의 수학 분야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KIMEP 뿐만 아니라 다른 카자흐스탄 대학에 다녀온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전공 과목 수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IMEP에 도착하면, 한국인 정규학생들도 있고, 2학기 제인 교환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강신청이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우리학교처럼 선착순이 아니라, 내

가 듣고 싶은 과목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면, 담당자가 알아서 수강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강완료는 개강 후 1~2주일 정도의 신청/변경 기간이 있습니다.

4.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카자흐스탄 자체가 개도국이다 보니, 서류를 준비할 때 충분한 기간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잊어버리거나 여러 번 메일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빨리 처리해주지 않아서 특히, 파견 전에는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KIMEP은 그나마 필요한 서류를 몇주전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꼭!!!! 메일을 꼼꼼히 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주의 사항은 1. 카자흐스탄 비자 발급 시, 꼭 단수비자를 받은 후에 출국->도착 후, KIMEP 국제교류처를 통해 복수비자를 발급 받을 것(현지 버디들이 도와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메일에 "백신 기록"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있을 때는, 본인이 태어난 산부인과나 다른 병원에 가서 자신이 맞았던 백신기록을 떼오거나 임의로 조작..을 해서 받아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일에 KIMEP 담당자가 준비해오라고 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갔더니 등록을 아예 해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이처럼 작은 서류하나가 말썽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를 꼭꼭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이름, 주소, 여권 관련 정보를 영어로 기입해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여권과 똑같이 하셔야 하고, 영어 주소지도 잘 기입하세요.

+비자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보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마감 1~2주일 전에는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확인을 꼭 받으세요. (ex.서류를 보낸다->담당자가 2~3일내 답장이 없을 경우, 다시 메일을 보내서 서류를 받았는지 메일을 보내 물어본다.->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학교 담당 선생님께 꼭! 말한다)

5. 항공권은 언제쯤 어떻게 구매하였습니까?

항공권은 1달전 쯤 아시아나를 이용했습니다. 유류세 포함 왕복 130만원 정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1학기를 할지, 연장할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티켓으로 출발 날짜만 정하고 티켓팅을 했습니다. 아시아나보다 "에어 아스타나"가 이벤트 기간에는 왕복 80만원 정도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데, 교환학생 파견이 1달 이상 시간을 두고 결정되었다면, (<http://airastana.com>)에 수시로 들어가서 서울-알마티 티켓이 할인하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영어로 되었고,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항공권을 처음 사보시는 분들은 그냥 안전하고 나중에 문의하기 쉬운 아시아나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B. 해당대학에서 수학하면서

1. 해당대학과 우리대학의 체제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 카자흐스탄 교수 뿐만 아니라 외국인(미국, 유럽, 아시아, 한국인...) 교수님이 상당히 많다. 기본적인 수업방식은 비슷하지만 내가 들은 과목들은 대부분 절대평가였다. 대학행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빠른 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다. KIMEP은 카자흐스탄 중에서 가장 미국식 대학 시스템을 잘 갖춘 학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준다. 교수와의 관계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 교수는 권위적이지 않다.

2. 다음 부분에 있어서 해당대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수강신청 방법 : 1. 파견 전에 할 일 : 우선 내가 듣고 싶은 전공이 KIMEP에 있는지 확인한다. KIMEP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무슨 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세세한 과목들은 홈페이지와 실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공 정도만 확인한다. 2. 도착 후 할 일: 수강신청은 개강과 동시에 시작된다. 교환 학생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을 대충 리스트를 만든 후 현지 한국인 교환학생들에게 수업이 어떤지 물어본다. (나의 경우는 국제관계학 전공자가 없어서 소신껏 듣고 싶은 것을 골라 들었다.) -> 이후 수강 하고 싶은 과목을 정해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담당자가 알아서 수강신청을 해준다. wise 같은 행정 시스템(my.kimep.kz)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 교환학생은 학기가 끝나기 2주 정도 전까지 언제든지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새로 수강 신청은 개강 후 1~2주안에 해야 한다.

- 수업시간 : 1학점 수업의 경우 약 50분정도. 3학점 수업은 1시간 15분씩 주 2회. 3시간으로 주 1회 하는 경우도 있음.

- 수업형식 (예: 강의, 세미나, 개인지도, 랩, 기타) : 국제관계학과 수업을 대부분 들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학교와 비슷했다. 피피티로 강의하고, 개인 프레젠테이션, 중간/기말 고사, 퀴즈, 등등이다. 경영과목은 대부분 중간/기말+과제 등으로 구성된다.

- 수업의 난이도 : 일단 영어로 모든 것이 이뤄지므로, 영어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난이도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배우는 내용은 4학년인 내가 보았을 때 대부분 아는 것이었지만, 과목마다 다르다. 같이 듣는 한국인 친구도 없이 대부분 과목을 혼

자 들었기 때문에, 특히 개인 발표를 준비하면서는 적어도 2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준비해서 스크립트도 완벽히 외워가려고 노력했다. 개인이 하기 나름이다.

- 수업참여도 및 출석 관련 : 출석은 교수에 따라 다르다. 수업 시작 전 한 명 한 명 부를 때도 있고, 출석 sheet을 학생들에게 돌려서 각자가 사인하기도 한다. 확실히 학생들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교수가 학생이 수업을 이해 못했거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마디 더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

- 시험 : 중간/기말 교사로 나뉘지고 따로 시험기간이 있다.

- 과제량 :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1~2주마다 review report를 써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라버스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할 때 적당히 널널한 과목+딱센 과목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강신청 당시에 가지는 그 패기를 너무 믿지 말고, 할 수 있겠다 싶은 수준보다 조금 더 널널하게 신청하길..

- 이수학점 (본인 총 이수학점) : 2학기 동안 총 전공 15학점+러시아어 2과목=우리학교 기준 15+2 정도 될 듯하다.

3.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 후배들에게 추천하고픈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국제관계학과라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관계, 카자흐스탄 외교정책, 러시아외교정책 과 같은 과목을 꼭 들어보길 추천한다. Asian Politics 같은 과목들도 우리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중앙아시아에 바라보는 아시아를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다. 비전공 학생이라면 비추천한다. 러시아어 과목은 꼭~ 듣길.. Saniya 선생님을 추천한다. 학점에 상관없이 수업에서 교환학생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기본적인 러시아어 몇 마디는 배워서 택시도 잡고 시장에서 흥정할 수도 있다.

4. 수업내용은 만족스러웠습니까? 네

5. 해당대학에 학습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교수님을 많이 찾아갔다.

6.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까? 수강 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다?
수강하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였습니까?

듣고 싶었지만 수강정원 미달로 취소되는 과목도 있었고, 수업 진도와 과제를 못이겨 중간에 드랍하는 과목도 두 세개 있었다(게다가 한 학기에..)

7.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적어주세요.

과목명	강의내용	참고사항
Russia Foreign Policy	러시아 정치와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내용자체가 어려운 만큼 영어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면 괜찮다. 난이도 상	
Kazakhstan Foreign Policy	Aigul 교수님의 미모와 실력에 자극이 되는 수업이다. 교수님이 젊고 오픈 마인드여서 수업자체가 지루하지는 않다. 카자흐스탄 외교 정책과 중요한 국제기구들에 대해서 배운다. 관심 있는 사람은(만) 들길 난이도 중.	
Central Asia-Russia Relations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정치 외교적 관계. 위에서 언급한 미모의 Aigul 교수님. 난이도 중.	
Asian Politics	국제관계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아시아 정치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특히 중국을 강조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난이도 중상?(2주에 한번 정도씩 수업 교재를 읽고 시험을 본다)	
Terrorism	테러리즘 문제 전반. 들은 수업 중 난이도 최상. Scott 교수님. 미국인 교수님이라 들었지만, 역시 영어로 이해하고 거의 매주 내주는 review 과제를 내기 힘들었고, 시험도 힘들었음.	
Russian	기본 러시아어. 숫자부터 기본적인 회화위주. 러시아어 조금 공부하고 가면 남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들을 수 있다. 후반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지만 기본 알파벳과 문법 조금 공부하고 가면 쉽다. 한국인 외에 다른 나라 교환학생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 않고 잘 못하기 때문에 학점은 보통만 해도 잘 나온다.	

8. 해당대학의 학습 분위기 및 관습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독특한 경험을 해보고 한 학기 놀다가는 것 자체에만 목적이 있다면 할말은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남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있었고, 카자흐스탄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얻은 것은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국이 나가면 공공외교관이 되듯이 지킬 건 지키면서 열심히 놀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C. 생활환경에 대해서

1. 현지의 숙소는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파견 전에 기숙사 신청을 통해서 입실하였습니다.

2.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선택범위와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입니까?

대부분 기숙사에 살고, 기숙사 1학기(거의5개월) 50만원 정도입니다. 물도 팡팡 잘 나오고 여름이 오려고 할 때 까지 난방은 하루 종일 틀어줍니다. 단,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치만 날씨가 건조해서 한국처럼 덥지 않아요

3.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식사와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조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인마트에 가서 인스턴트를 많이 사와서 해먹었고, 라면도 많이 먹었습니다. 샤슬릭이나 전통 음식도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요. 학교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구요. 차타고 가면 햄버거 가게도 있어요...아, 맥도날드는 없지만 KFC는 있습니다.

4. 현지에 머무르는 동안 건강상태는 양호했습니까? 해당대학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가입조건은 무엇입니까?

양호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들고 가면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은 없고 한국에서 가입해가면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기 전에 감기약 4~5통 가지고 갔는데, 1년 정도 먹은 것 같네요. 건조해서 감기가 자주 걸리더라고요. 파스는 모기가 없어서 별로 필요없는 것 같아요.

5.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이 있었습니까? (예: 음식, 옷, 개인 위생품, 기타)
우리나라에서 준비해 가야할 물품 또는 두고 가도 되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 겹쳐있기 때문에 미니 전기장판 꼭 챙겨가세요. 가서 한인 마트에서 사면 2배정도 비싸요. 비상약은 한국에서 챙겨가세요. 20kg넘지 않는다면 라면이나 스낵 참치 3분 육개장 이런 것들 귀해요.

6. 컴퓨터나 도서관, 기타 해당대학의 시설물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행정 ID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컴퓨터 시설은 좋습니다. 학교 전체에 WIFI가 제가 오기 전에 깔렸었는데, 아마 잘 작동할 것 같네요.

7. 해당대학의 학생들과의 교제는 원활하였습니까?
학생들이 다 착하고, 오픈되어 있어서 스스럼없이 다가가도 되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귀여운 버디 친구들이 잘 챙겨주기 때문에 걱정 많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인 사이에서 더 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네요.

D. 지출경비에 대해서

1. 학교에서 보낸 시간과 여행 또는 관광하는데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8월초에 도착해 12월 중순까지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원래 중간고사 이후 1주일간 방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도인 아스타나를 학교에서 교환학생들과 3박4일정도 갔다 오고, 이후에 키르기스스탄을 3일정도 여행했습니다. 겨울 방학때는 12월중순~1월초까지 터키를 갔다왔고, 1월 중순에 봄학기가 시작해서 다시 중간 방학 때는 유럽을 짧게 갔다 왔습니다. 이때는 전 학기에 왔다가 유럽친구들이 초대해서 동유럽과 이탈리아 등등 함께 여행했어요.

2. 해당대학에 머무는 동안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지출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숙박 및 식비 : 숙박비 : 학기에 한번 50만원 (기숙사비) 생활비: 넉넉잡아 50만원 정도- 여학생 기준으로. 술 값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3. 해당대학에서 지출한 금액과 항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해당대학의 부대 서비스, 각종 시설물, 컴퓨터 및 도서관 이용 관련 등)

대학의 부대서비스 이용에는 추가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단지 프린트를 할 때는 종이만 가져가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해주기도 하고, 많은 분량의 경우에는 학교 구내+근처 지하철역 지하에 인쇄소에 가서 돈을 내고 인쇄를 합니다. 인쇄비는 우리

와 비슷합니다.

4. 현지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현지에서 은행 계좌 개설은 힘들다고 보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신용 카드 및 체크카드를 가져가서 돈을 한번에 2만달러=16만원 정도 뽑아 썼습니다. ATM은 Visa, Master, Maestro등등 가능합니다. 달러를 가져가서 환전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뽑아서 쓰고, 현지에서도 현금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마트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E. 후배를 위하여

1. 다음 참가자들이 해당대학의 교환학생 준비를 하는데 추천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여행책자, 소설, 신문, 영화 등)

남는 시간동안 볼 영화를 다운받아서 USB나 외장하드에 넣어가면 좋습니다. 현지에서 영화한편을 토렌트로 다운받으려면 하루정도 걸립니다. 웬만하면 외국영화 가져가세요..영어 공부도 할 겸..

2.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조언, 비판, 제안을 써 주십시오.

1년 동안 기대했던 것 보다 만족스럽게 다녀왔지만, 카자흐스탄이나 CA국가로 파견하는 학교와 학생이 적다보니 담당자 분도 꼼꼼하게 신경써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담당자 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잘 신경 쓰시면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 연장하고 싶을때는 꼭 우리학교 담당자분과 의논하셔야 합니다. 미리!

3.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느낀점(스스로 만족 또는 불만족)이 있다면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영어권에 가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도 되고, 막상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점에서 KIMEP은 모든 학생들이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서로 주눅들지 않고도 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3시간정도씩은 무엇이든 영어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영어가 빨리 늘었습니다. 러시아어를 파견전에 배웠고 러시아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었지만, 막상 영어를 주로 쓰다보니 러시아어는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러시아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까주구나 KazGaZa와 같은 러시아어로만 수업하는 학교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KIMEP은 방총장님이 한국인이시며, 존경스러울 만큼 카자흐스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시고, 파견 후로도 한국인 학생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가지시는 만큼, KIMEP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이후에 인맥 형성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방총장님은 KIMEP 출신 한국인 학생들의 취업에도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와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적었고, 중앙아시아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KIMEP에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와, 미국을 동시에 경험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후배님들에게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정말 잊지 못할 교환학생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